

Route 1
국도 1호선

대한민국 국도이야기

‘남북의 시간’을 달리는 길, 국도 1호선

도로교통 저널 편집부

국도 1호선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에 이르는 일반국도다. ‘목포~신의주선’이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이유다. 이 길의 정체성은 “번호 1번”이 아니라 시간의 층에 있다. 조선의 대로(大路)가 겹치고, 일제강점기의 ‘신작로’가 뼈대를 만들었으며, 전후에는 산업화 물류축으로 달렸다. 그리고 북쪽 끝에서 길은 멈춘다. 국도 1호선은 오늘도 이어지지 못한 구간을 품은 채,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01

‘대로’와 ‘신작로’가 겹친 역사의 간선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국도 1호선의 형성을 일제강점기 ‘신작로’ 설치를 근간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천안 이북 구간은 조선시대 ‘대로’와 거의 일치하지만, 이남 구간은 식민 통치 목적에 따라 일부 변형되었다고 정리한다.

즉 국도 1호선은 새로 “만든 길”이라기보다, 기존의 큰 길을 넓히고 곧게 펴며(직선화) 국가 간선축으로 재편한 결과에 가깝다. 같은 노선을 달리면서도 지역마다 전혀 다른 풍경(평야·도시·고개·하천)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2

살아 움직이는 기점, 현재진행형 인프라

길의 시작점은 고정된 듯 보이지만, 도시의 확장과 교량 개통이 ‘출발점의 상징’을 이동시키기도 한다. 목포시는 목포대교 개통(2012) 이후 국도 1호선 기점을 기존 대의동 일대에서 고하도 방향(충무동)으로 옮겼고, 이 변경으로(목포 대의동~신의주 기준) 길이가 939.1km에서 943.37km로 4.27km 연장됐다고 밝혔다.



목포대교전경



1번 국도가 멈추는 자리(임진각)



국도 1호선의 시작도 이동했다. 목포대교 개통 이후 기점이 고하도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Route 1

국도 1호선

이 대목은 짧게만 다루어도 메시지가 분명해진다. 국도 1호선은 '역사'이면서 동시에 '현재진행형' 인프라다.

표1. 국도 1호선 노선 데이터

정의	목포~신의주 일반국도 (이칭: 목포~신의주선, 1번 국도)
경유축(남측)	서부 평야지대-충청 내륙-수도권 남부-서울-고양-파주
남한 관리구간 현황(백과 기준)	총연장 498.7km, 포장률 99.8%
키워드	대로(천안 이북) / 신작로(근간) / 산업화 물류축 / 분단의 단절

03

문산 이후, 정보가 '끊기는' 구간

백과사전은 국도 1호선이 고양-파주를 거쳐 신의주까지 뻗지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이후 구간은 군사분계선 및 북한 지역이라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없다"고 정리한다.

임진각은 이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판문점견학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임진각은 1972년, "1번 국도를 따라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끝 지점"에 세워졌다. 그러니 1호선의 북쪽 끝은 단순한 종점이 아니라, 길이 멈춘 자리에서 기억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04

국도 1호선 미식 로드 5선

역사가 흐르는 국도 1호선 위에는 지역의 삶과 문화가 녹아든 풍성한 미식 거리가 자리 잡고 있다. 도로를 따라 북상하며 만날 수 있는 대표 미식을 소개한다.

항구의 서사가 담긴 목포 : 관광 DB에 등재된 '금메달식당'에서는 깊은 맛과 서사를 지닌 홍탁삼합을 경험할 수 있으며, 목포의 대표적인 5미(味) 중 하나인 세발낙지는 '독천식당'의 연포탕과 낙지비빔밥으로 즐길 수 있다.

골목의 역사가 된 광주 송정 : 1950년대부터 형성되어 현재 200m 거리에 10여 개의 떡갈비 전문점이 모여 있는 '송정떡갈비거리'가 여행객을 맞이한다. 특히 1976년에 문을 연 '송정떡갈비 1호점'은 이 거리의 산역사로 통한다.

한 그릇에 담긴 명인의 숨결, 전주 : 1973년 개업 이래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식품 명인의 '가족회관'에서 정통 전주비빔밥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수원의 상징, 숯불 왕갈비 : 50년 이상의 묵직한 업력을 자랑하며 '수원 3대 갈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본수원갈비'가 수도권으로 진입한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생활 음식이 거리 문화가 되다(송정)

05

맺음말

국도 1호선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많은 시대를 통과한 길이다. 한 구간은 대로의 그림자를 품고, 한 구간은 신작로의 흔적을 드러내며, 북쪽 끝에서는 분단이 도로의 정보를 끊는다.[1]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길을 달린다. 항구의 식탁(목포)에서 시작해, 역 앞 골목(송정), 한 그릇의 도시(전주), 숯불의 상징(수원)을 지나, 임진각의 바람 앞에서 속도를 늦춘다. 길이 이어지지 않는 시대에도, 우리는 삶의 방식으로 연결을 만들어왔다. 국도 1호선은 그 사실을 오늘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

출처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도1호선'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7805>
- [2] 연합뉴스(2013-05-08), 목포 국도 1호선 기점 변경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130508112800054>
- [3] 광주광역시 관광, '송정떡갈비거리' <https://tour.gwangju.go.kr/home/tour/info/village/003.cs?act=view&infol=695>
- [4] 판문점견학지원센터, 임진각 안내 <https://www.panmuntour.go.kr/nlgn/pblc/guidance/nearby.do>
- [5]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